

2014. 2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4년 2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국	
2014.2.25.	대전MBC 대회의실	7/10	6	

- 시청자위원 불참자 명단: 김형주, 송인덕, 장동환 위원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 김창욱 사장, 김미리 경영기술국장, 김종찬 편성제작국장, 서주석 보도국장, 차태현 방송기술센터장, 오승용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6	11	-	-	17	-	17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5	12	-	17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6건	6 건	1월
교양	시사플러스 우리지역 이슈를 조망해 볼 수 있게 구성	시사플러스 올해 핫 이슈를 조망해 볼 수 있게 구성	1월
교양	교양 프로그램에서 소개되는 농촌주민들의 농촌특산품이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되어 농가소득에도 보탬이 되길	농가에서 직접 만드는 농촌특산품에 대해 방송 후 문의가 오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음.	1월
교양	창사 50주년 특집 프로그램 PR 지속적으로 전개해 시청자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창사 50주년 특집 프로그램과 행사 PR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1월
교양	'토크 앤 조이' 토크 프로그램 배경 세트(서가에 꽂혀 있는 책)출연진과 어울리게 해야.	'토크 앤 조이' 배경 세트 새롭게 단장	1월
보도	뉴스 자막 처리, 자막 등장 통일성 있게 처리해야	뉴스 자막 처리와 뉴스 자막 등장 통일성 있게 처리함	1월
기타	홈페이지 공지사항 중 오래 전 내용은 정리해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오래 전 내용은 정리함	1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해당사항 없음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교양	<p>공간 다큐멘터리 '그 곳' 「달콤한 바다 목장 통영」 편(2월 10일)을 시청하였다. 이번 주 공간 다큐멘터리 '그 곳'은 통영 특산물 '굴'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양한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지역 주민들에게는 동질감과 애郷심을 고취시켜주고 다른 지역민들에게는 새로운 볼거리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의미 있는 방송이었다.</p> <p>특히 본 편에서는 '굴'을 채취하고 다듬어 위생 검사를 통해 판매 및 수출하는 전 과정을 따라 단계별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참신한 느낌으로 다가왔다. 또한 '굴' 밭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시민들과의 생동감 넘치는 인터뷰를 통해 우리 이웃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리포터와 시민이 대화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끌어 내는 모습은 거부감 없이 방송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며, 지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잘 정돈된 느낌의 다큐멘터리에 비해 인터뷰 내용이나 편집된 영상이 다소 투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시민들과의 꾸밈없는 인터뷰는 오히려 시청자에게 신선하고 새롭게 다가올 수 있었다(오덕성).</p>	<p>공간 다큐멘터리 '그 곳'은 천편 일률적인 휴먼다큐를 벗어나 조금 더 새로운 시선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수 있지는 않을까? 라는 시각에서 우리 삶의 현장들을 인물위주에서 벗어나 치열한 삶의 공간에서 바라보며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어보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러기에 인터뷰이들의 연출된 인터뷰가 아닌 자연스런 인터뷰를 생명으로 삼고 있다. 다소 투박해 보이기도 하지만 언급하신대로 꾸밈없는 이야기를 영상에 담고 있다.</p>	<p>편성 수용</p>
교양	<p>TV특강 「전통 건강법의 재발견」 편(2월 11일)을 모니터하였다. 이번 TV특강 강의는 전통을 이어나가는 한의학 박사 학성강당의 청곡 김종희 선생을 모셔 전통 건강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변화하는 시대에 옛 선조들의 기본 생활법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게 한다.</p> <p>전통 건강법의 근본은 '균형과 조화다.' 라는 결론으로 동양 의학에서 인체와 자연이 상관관계라는 것을 오행배속표를 통해 설명하였다. 또 생활 속의 건강법으로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과 유의할 점들을 남녀를 구별하여 알기 쉽게 전달하였고, 구체적인 방법들과 유의한 음식을 소개받은 유의한 시간이었다.</p>	<p>TV특강이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주기위해 제작에 신경을 쓰겠다. 준비된 자료들을 시청자들과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p>	<p>편성 의견참고</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p>강의를 하는 김종희 선생의 토속적인 말투는 정겹고 즐겁게 다가왔으며 뛰어난 유머와 지식으로 방청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강의를 위해 준비된 자료들이 모니터 화면으로만 잡히는 등 시청자들이 보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자막으로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여 비교적 도움이 되었다(오덕성).</p>		
교양	<p>시사플러스 「표류하는 세종시 교육 / 출구를 찾지 못하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2월 14일)편을 시청하였다. 이번 시사플러스에서는 스마트 교육 등 명품교육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세종시가 교실부족과 그로 인한 증축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세종시교육의 현주소를 점검해보고, 이전에 시급한 유성버스터미널 그러나 개발에 앞서 논란에 휩싸인 유성복합터미널 그 해법을 찾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p> <p>전체도시계획을 고려할 때 학교부지 추가 수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세종시 행복청'과 교실을 지을 부지가 없으니 운동장을 없애더라도 건물을 짓겠다는 '세종시 교육청'의 마찰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시민연대는 학생들의 피해와 안정성의 보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내용을 각 부서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부서에 대한 주장을 내세우기만 하고 있어 앞으로의 검토와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p> <p>대전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지연되면서 개발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 시점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은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을 지고 우선협상대상자와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행정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유성복합터미널 문제에 대해 취재한 PD가 스튜디오에 나와 설명하였는데, 중복되는 이론적인 설명이 많아 지루하였고 문제점 도출은 충분하였으나 그럴듯한 해결방안이 언급되지 않아 아쉽게 느껴졌다(오덕성).</p>	<p><표류하는 세종시 교육>은 스마트교육 등 명품 교육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세종시가 교실 부족과 그로 인한 증축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장을 담고 있다. 이는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인한 것으로 지난 해, 학생 수에 비해 교실이 부족한 학교대란 사태가 발생한데 이어 올해는 무리한 교실증축논란이 일면서 또 다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교실 부족의 최대 피해자는 세종시 학생들이며 학습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안은 시사플러스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조속한 해결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p> <p><출구를 찾지 못하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은 유성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대전도시공사의 미숙한 행정처리로 지연되면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문제점 도출에만 그치지 않고 보다 대안을 담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p>	<p>편성 의견참고</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교양	<p>TV특강 「무엇이 원하는 결과를 만드는가」(2월 18일)를 잘 보았다. 이번 방송은 마케팅 박사이자 시너지효과 전문가인 신병철 박사를 모시고 특강을 하였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어떠한 방식으로 계획하고 결과를 만들 수 있는가’하는 주제로 특강을 이끌었다.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계획하고 계획된 바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하고 수정 보완을 해가면 목표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많은 공감을 할 수 있었다. 반면 강연을 진행하면서 특강이 체계적이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적지않게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아침 8시대 시청했는데 무겁고 어려운 주제로 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주제로 접근하는 방식도 모색했으면 한다(박희원).</p>	<p>다양한 방면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초청하는 과정에 강의의 전문성의 정도 차이가 존재함이 사실이다.</p> <p>앞으로 보다 쉽고 내실 있는 강의를 위해 주제 선정과 강의 내용, 방법을 고려해서 프로그램 제작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p>	<p>편성 의견참고</p>
보도	<p>대전시장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많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방식을 밀어붙이는 듯하다. 대전시가 특정방식을 사전에 설정해 놓고 여론을 몰아가는 듯하다. 대전시민의 삶의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방식 선정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해주길 바란다(김영광).</p>	<p>도시철도 2호선에 관련되어 늘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 관련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또한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방식에 대한 심층기획물을 준비하고 있다.</p>	<p>보도 수용</p>
교양	<p>아침이 좋다(2월 20일)에서 <충청 상징 50선> 코너에 대전시 중구 무수동산신제를 소개하였다. 농촌전통 테마마을로 지정되어 보여주는 무수동의 다양한 전통행사들이 보기 좋았다. 아쉬운 점은 행사에 출연(인터뷰)한 사람들의 이름을 자막처리 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충청상징 50선의 선정기준이 궁금하다. 창사 50주년을 맞아 기획된 이 코너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여론조사의 결과로 선정했는지 제보를 받고 선정했는지 시청자 입장에서 궁금하다(김영광).</p>	<p><충청상징 50선>은 ‘아침이 좋다’에서 창사 50주년을 맞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아이템이다. 선정시 여론조사로 하기에는 시간과 예산의 부족으로 어려워 시청자들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고 있다. 지금 홈페이지 게시판에 시청자들의 참여가 점점 늘고 있다. 선정된 시청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하여 일방적인 방송이 아닌 참여방송의 이미지를 심어주어 ‘방송의 주인은 시청자다’라는 명제에 접근하려 하고 있다.</p>	<p>편성 의견참고</p>
보도	<p>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았다. 출마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되는 것 같다. 출마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해주길 바란다(김영광).</p>	<p>‘선택 2014’ 등 관련 기획물을 방송할 예정이다.</p>	<p>보도 수용</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교양	<p>시사플러스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는 유성 복합터미널 사업'(2월 14일)을 방송하였다.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의 기능을 통합하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구성방식에 대해 한 마디 지적을 해주고 싶다. 고발기능을 갖고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헤쳐 대안을 찾는 점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다. 다만 사안별로 의견을 구하고 관계자 인터뷰를 화면에 담는데 있어 사안에 대한 찬반관련의견을 담는데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균형있게 담아야 된다고 본다. 한 쪽 의견만 집중해서 담지 않기를 바란다. 이를테면 사업발주처인 대전도시공사와 상급기관인 대전시 관계자들 의견도(섭외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면 시청자들이 보다 더 균형감각을 갖고 판단을 해서 시사비비를 가릴 수 있다고 본다(김명수).</p>	<p>시사프로그램의 생명은 공정성, 불편부당성, 객관성 등이라 할 수 있다. 제작진도 이런 기조로 프로그램을 접근하고 제작행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기에 제작진이 선불리 예단하지 않고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사안의 판단은 시청자가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p>	<p>편성 의견참고</p>
보도	<p>시사광장(2월 16일)에서 '대전마권 발행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패널 구성을 보니 민주당 국회의원, 상담심리학과 교수, 마권발매소 확장저지주민대책위원장, 시민단체 사무처장 등으로 이루어졌다. 마권장의발매소 증축으로 인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사광장'에서 발빠르게 시의성 있는 주제로 토론을 가진 것은 고무적이긴 하나 아쉬운 점이 눈에 띄었다. 그래도 토론 프로그램이면 찬반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상호 활발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의미 있는 대안을 도출해야 하는데 토론 패널들 전부 사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출연해서 토론에 생기를 불어 넣지 못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생방송이 아닌 녹화방송으로 알고 있는데 패널들의 의견을 진행자가 중간에 자른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 '시간제약 있으니...'하는 표현을 사용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이 점을 개선해 주기 바란다(김명수).</p>	<p>'시사광장'의 경우 패널을 누구로 선정하느냐에 따라 주제에 걸맞게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패널 선정을 유의하겠 다. 패널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데 있어 어려움 없도록 진행을 매끄럽게 하도록 제작진과 협의하겠다.</p>	<p>보도 의견참고</p>
교양	<p>허참의 토크 앤 조이(2월 22일)에 25년 동안 표주박 통신을 보내온 김주년 교수가 출연하였다. 구성도 깔끔하고 자막처리도 좋</p>	<p>'표주박통신'의 김조년 교수는 지역에서 행동하는 양심으로 불리며 제자들의 많은 존경을 받고</p>	<p>편성 의견참고</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p>고 출연자와 관련 있는 분들이 스튜디오에 출연해 보기 좋았다. 김주년 교수와 함석헌 씨와의 관계가 잠시 나오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함석헌씨를 잘 모른다. 함석헌씨에 대한 자료 등을 준비해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여진행자인 박가영 아나운서의 짧은 치마가 프로그램 몰입도를 저하시켰다. 박가영 아나운서는 이 프로그램에서 남MC의 보조적인 입장이 아니고 주체적 입장에서 당당하게 진행을 잘 하고 있다. 프로그램 타이틀을 '허참의 토크 앤 조이'가 아니라 '허참, 박가영의 토크 앤 조이'로 변경해 보면 어떨까?(유덕순).</p>	<p>있는 분이다. 출연에 응하지 않아 제작진이 오랫동안 공들여 모신 분이다. 지적하신 함석헌 선생에 대한 정보부족은 공감한다. '허참의 토크 앤 조이'라는 타이틀은 우리 지역뿐 아니라 타 지역에도 공급, 방송되기에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추지 못한 여자 아나운서를 같이 명기하는 타이틀은 맞지 않다고 판단한다.</p>	
교양	<p>대전MBC에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본다. 노년에 대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프로그램을 선보여 노인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유덕순).</p>	<p>급격히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공감한다. 개편시 고려하겠다.</p>	편성 의견참고
교양	<p>세종시에서 대형행사를 개최할 만한 곳이 세종문예회관이다. 서울에서 세종문예회관을 가기위한 안내가 세종시 홈페이지에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 문예회관 위치만 나와 있고 대중교통 안내가 없다. 세종시로 진입하기 위해 강남고속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거나 KTX로 오송역에서 내려 세종시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지만 무궁화호를 타고 조치원역에서 내리는 방법이 제대로 오는 방법일 듯싶다. 관광객들을 위한 친절과 편의를 제공하는 행정이 필요한데 이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대전MBC에서 외국인이 관광객으로서 우리 지역에 올 때 어떤 점이 불편하고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면 좋겠다. '시사플러스' 같은 프로그램에서 제작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김경숙).</p>	<p>외국인이 우리 지역에 관광을 때 불편한 점, 개선할 점을 점검하는 아이템은 매우 좋다.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인 금산인삼축제, 백제문화제 등에 맞춰 아이템으로서 고려하겠다. 개인적으로는 뉴스에서의 점검이 그 효과가 아주 높다고 본다.</p>	편성 의견참고
보도	<p>시사광장(2월 9일)에서 '대학 구조개혁, 지방대 육성인가 퇴출인가'를 다루었다. 지금 대학은 대학 구조개혁 관련 특성화전략을 짜느라고 고심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 패</p>	<p>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p>	보도 의견참고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p>널은 구성이 잘 짜여져 시청자들에게 사안이 제대로 전달된 것 같다. 공주대학교의 경우 예산캠퍼스에는 방학 때 택시도 안들어온다. 시장논리로 대학을 평가하지 말아야한다(김경숙).</p>		
<p>보도</p>	<p>시사광장 진행시 자신의 발언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타임 체크 시계를 세팅해 놓으면 좋겠다. 패널들과 진행자가 생방송 진행하는 묘미를 갖고 긴장감 있게 토론에 임할 것 같다(김경숙).</p>	<p>제작팀과 협의를 갖겠다.</p>	<p>보도 의견참고</p>
<p>보도</p>	<p>충남도정신문에서는 도정이 펼쳐지는 내포에 지역신문사나 지역방송사 등 언론사 본사가 1곳도 없어 대전KBS를 유치하자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만큼 지역뉴스에서 충남지역이 소홀하게 취급 받고 있어 그런 주장이 나왔다고 본다. 대전MBC 뉴스를 보면 뉴스소재가 대전에 집중되어 있다. 대전, 세종, 충남 뉴스의 비중이 어느 정도 안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대전에 집중되어 있다. 충남 관련 뉴스를 보다 많이 취급하기를 바란다(한찬휘).</p>	<p>내포신도시와 세종 등 충남권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뉴스를 만들겠다.</p>	<p>보도 의견참고</p>
<p>교양</p>	<p>대전MBC 창사 50주년과 관련 프로그램 상단에 엠블렘이 노출되어 보기 좋았다. 50주년 관련 특집 프로그램과 공익사업 등을 계속 홍보를 해서 일반 시청자들이 대전MBC의 50주년 행사를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면 좋겠다(한찬휘).</p>	<p>창사 50주년 엠블렘을 로컬 프로그램과 공익PR 등에 의무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다. 앞으로 홍보영상, 로고송 등에도 연계할 것이다.</p>	<p>편성 수용</p>
<p>교양</p>	<p>시사플러스(2월 14일) '표류하는 세종시 교육'코너에서 세종시 사업초기 행복청에서 수요 예측 실패로 학급부족 사태 대란을 맞은 세종시 교육 문제를 다루었다. 시의성 있는 소재를 잘 다루었다. 세종시 문제를 다루는 보도국 뉴스와는 별개로 TV제작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세종시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지속적인 관심과 후속제작을 기대해 본다(박희원).</p>	<p>'표류하는 세종시 교육' 교실 부족의 최대 피해자는 세종시 학생들이며 학습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안은 시사플러스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해결되도록 후속제작을 시도하겠다.</p>	<p>편성 수용</p>

